

금제띠고리(석암리 9호분 출토)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노지현 | 104호 부여삼한실 | 18:00~18:30

1916년 평안남도 대동군 석암리 9호분 출토 금제띠고리(국보 제189호)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누금세공품으로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제띠고리는 피장자의 허리 부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허리띠 고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화려한 장식과 정교한 제작 기술이 돋보입니다.

금제띠고리는 약 22.8K 순도의 금판으로 만들었는데, 금판을 두드려 용 일곱 마리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금선과 금알갱이로 용의 몸통, 윤곽선 및 테두리를 장식하였습니다. 테두리 장식과 용의 몸통 및 윤곽선은 약 23.8K순도의 금선으로 표현하였는데, 한 줄 또는 두 줄로 꼬아져 있습니다.

용의 몸통 및 표면 장식 등에는 순도 약 23.8K의 금알갱이가 사용되었는데 크기에 따라 대, 중, 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금알갱이가 접합된 부분에서는 구리(Cu)의 함유량이 높게 검출되었는데, 구리 확산법을 이용하여 금알갱이를 접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의 이마 및 몸통에는 청색 터키석이 감입되어 있고 용 일곱 마리의 눈 부분에는 적색 안료인 진사/주가 감입되었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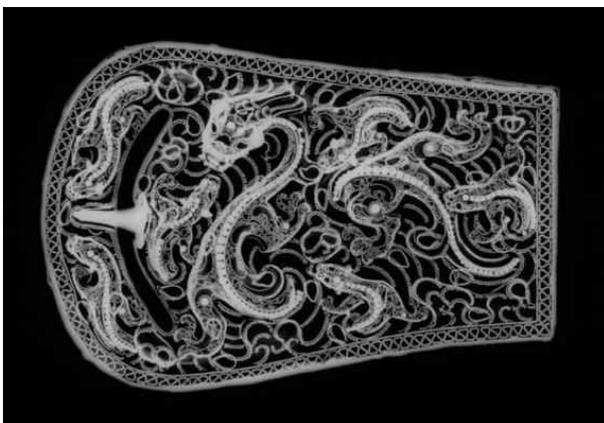


그림 1. 엑스선 투과촬영 사진



그림 2. 용의 눈에 감입된 적색 안료 흔적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이수경 | 119호 조선3실 | 18:00~18:30

조선朝鮮(1392-1897)의 국가 경영 원칙은 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건국 세력은 고려시대 상업이 성행했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았기에 상업 발달을 억압하여 농촌의 정기 시장인 장시場市가 소멸하고 사무역私貿易이 금지되면서 상업이 후퇴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의적인 정책은 오래 가지 않았다. 15세기 말 흥년으로 장시가 열리게 되면서 점차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임진왜란壬辰倭亂(1592-1598)이 일어난 후 농업 중심 사회에서 물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회로 변화했다. 전란 중에는 부족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어 생산물이 증가하면서 장시가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면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물과 면포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대외적으로는 조선 상인이 중국의 비단을 일본 상인들에게 은화銀貨를 받고 파는 중개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은화 유입이 늘어났고 은화가 고액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고액 화폐의 편리성을 깨닫는 한편, 보관과 유통이 제한적인 물품 화폐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고액 화폐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678년 허적許積, 권대운權大運 등이 금속 화폐 시행을 적극 건의하여 구리, 납, 주석을 녹여 만드는 상평통보常平通寶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 사회는 본격적으로 화폐 유통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상평통보’에서 ‘통보’는 ‘널리 통용되는 보배’라는 뜻으로 동전을 의미하고, ‘상’은 ‘늘, 항상’, ‘평’은 ‘평준平準’으로 사물을 균일하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상평통보는 1894년까지 널리 사용되며 이름처럼 물가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상평통보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한양의 상품 유통 경제가 더욱 발달했다. 19세기 세도정권과 상업 자본이 결합하여 경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상업 자본이 권



그림 1. 상평통보

력의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도시의 부는 세도 가문, 상인, 하급 관료 등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극소수에게만 성공과 부가 집중되던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도박이 성행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제53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3월 29일)

사로국의 성장과 진한 통합

윤은식 | 108호 신라실 |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실에 들어서면 황금왕국의 상징인 금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신라가 5세기 무렵에 황금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태백산맥의 동남쪽 외딴 곳에 자리 잡았던 사로국이 진한 소국을 차례로 통합하며 고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림 1. 사로국 단계의 (추정)니사금 목관묘, 경주 사라리 130호묘, 2세기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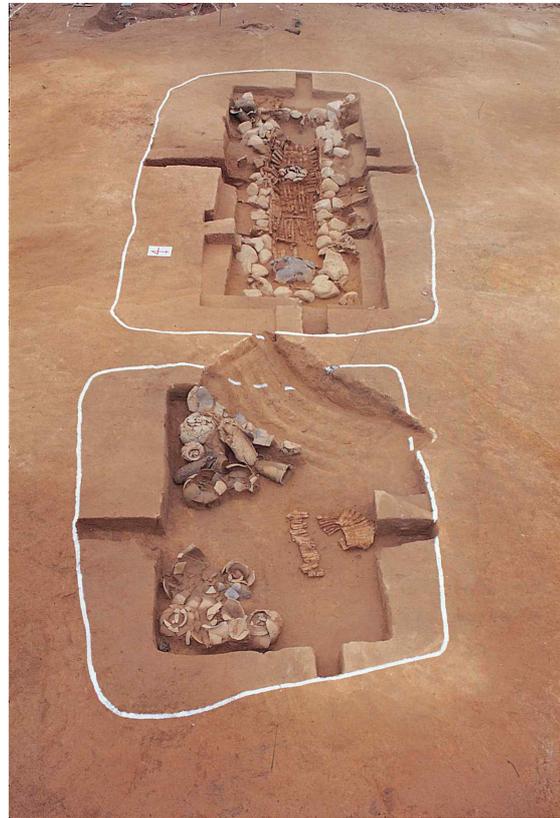


그림 2. 사로국 단계의 상위 위계 목곽묘, 경주 구어리 1호묘, 4세기 전후

신라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로국과 진한에 대해 알아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사로국과 진한 그리고 신라의 관계가 포함되기 마련이며, 이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과제와 맞닿아 있다. 그것은 『삼국사기三國史



그림 3. 황금왕국의 상징 신라 금관, 황남대총 북분 출토, 5세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로국이 진한 소국과 어떤 관계였는지와 사로국이 진한 소국을 언제부터 어떻게 통합해나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음으로 무덤과 부장품은 사로국과 진한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고고자료인데, 묘제가 목관묘木棺墓→목곽묘木槨墓→적석목곽묘積石木槨墓로 세 차례나 바뀌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해당시기 각 고분군이 가지고 있는 미시적(고분군 내부)이고 거시적(고분군과 고분군) 단위의 위계位階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무덤의 변천 과정과 시공적時空的 관점에서의 위계 관계를 추적하는 일이야말로 사로국의 성장과 진한 통합 과정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자료는 사로국 성장과 진한 통합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사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어떻게 모델링modeling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화두話頭이다. 이 모델링 안에는 마땅히 진한의 여러 소국 중에서 왜 사로국이 통합의 주체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있어야 한다. 즉 사로국이 진한 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여러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이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였을까가 중요하다.

사로국의 성장과 진한 통합의 결과물은 황금왕국의 상징인 금관으로 나타나 있다.

記』의 초기기록에 대한 이해, 고고자료로서의 무덤과 부장품의 해석, 사로국 성장 모델의 설정에 대한 것이다.

먼저 『삼국사기』 초기기록(내물왕 이전 시기의 기술)의 수용 여부와 정도는 여전히 학계의 뜨거운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며, 고고학에서도 초기 기록의 해석에 따라 사로국과 신라의 관계를 전기론前期論과 전사론前史論의 틀로 구분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양자의 접근법 모두가 사로국이 성장하여 신라가 된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로국과 진한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특별전 <이집트 보물전> (14)

오세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고대 이집트인들의 장례물품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상류층은 장례물품을 갖추는데 아끼지 않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살았던 파디인프는 다루기 어렵고 값비싼 재료를 구입하여 석관을 만들었고, 기원후 1세기 경에 만들어진 한 로마 여성 미라 덮개는 두꺼운 관지 위에 화려한 금박과 유리상감으로 상류층으로서의 지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같은 시대의 한 남성 미라 가면은 점토로 만든 가면의 겉면에 금박을 입혀 자신이 이렇게 많은 금박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과시가 엿보입니다. 이런 화려한 장식은 사후에 영원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죽은 사람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과시함으로써 가문의 세력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과시적인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류층도 있어 벽면에 초상화를 그려 넣는 훨씬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많은 금을 장례품에 포함시키는 풍속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장례물품은 계급 차이에 따라 선택하는 재료도 달랐습니다. 상류층은 관에 그림을 그려 넣고, 광택제로 칠을 하고 금박까지 입혔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인들은 나무나 흙으로 만든 관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상류층 장례물의 축소 모형이나 모조품을 통해 사후세계에서라도 그들만의 부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례물품을 탈취하여 재사용하였습니다.



그림 1. 발 덮개



그림 2. 봉헌의식 새김돌